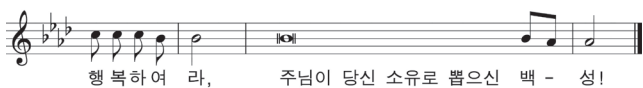


사진 : 정승남 토마스(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지혜서 18, 6~9

화답송 시편 33(32), 1과 12, 18~19, 20과 22 (© 12L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
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
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2.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
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
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
이네. ◎

3.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
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히브리서 11, 1~2, 8~19

복음 환호송 마태 24, 42, 44 참조

◎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
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루카 12, 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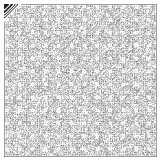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47, 12, 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www.catholicbusan.or.kr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권 순 호
알베르토 신부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뱃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대! 아~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어느 가수의 대중가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의 노랫말입니다. 떠나는 남자, 기다리는 여자. 우리나라 대중문화 속에 번번이 나오는, 현대 여성운동가들이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남성우월주의 이미지입니다. 왜 남자만 항상 떠나고, 여자만 기다려야 하는가? 남자가 언제나 주도하고, 주체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하는가? 어찌 되었든, 현대는

남자든 여자든 기다려야 하고 수동적이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주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은 먼 여행을 떠나는 주인과 같고,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며 집을 관리해야 하는 집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하느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다리기를, 수동적하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복음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덜 매력적인지도 모릅니다. 매년 치솟아 올랐던 주일 미사 참석 신자 수와 예비신자 숫자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느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는 항상 여기에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손아귀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떠나 있는 대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하느님을 묘사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사랑받기는 바라지만 사랑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떠나는 배들만 있고, 정착할 항구는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또한 깨어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 주례성당 주임**

지금까지

미안해요,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나와 친한 사람을 믿습니다.
선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정의와 선함은 오간데 없고
내게 친절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친한 사람이 정의로운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선함이라
믿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BBC부산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8.8(월)~9(화)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8.10(수)~13(토)

김무종 신부(중앙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8.9(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기초공동체 초대 토크 코너) 장미희

◆ 다정다감, 다섯시 ◆

월~금 17:05~18:00

8.9(화) '시인 농부의 민들레편지'

출연: 시인 서정홍 안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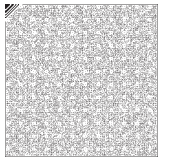
◆ 신부들의 수다 ◆

8.13(토) 13:00~14:00

진행: 홍영택 신부(안락 부주임), 김병희 신부
(호계 보좌), 김수환 신부(서대신 보좌)

나를 딛고 일어나라

윤철현 프란치스코



20여 년 전 어느 여름 날의 일이었습니다. 선배 의사 한분의 강압에 의해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동의보감’의 무대인 밀양 산내면으로 현장답사를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스승 유의태가 제자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 인체해부를 실습하게 하였던 ‘얼음굴’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석골사’라는 절 뒤로 올라가다, 산길에서 약간 벗어난 산모퉁이를 돌아다니니 어른 서너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생각만큼 굴의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얼음굴’이라 불릴 만큼 서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시신해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소설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불현듯 마치 제가 허준이 되어 스승님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

에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시신 앞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스승님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며 밤을 새워 스승님의 시신을 해부합니다. “나를 제물로 삼아 **딛고 일어나** 만백성을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의원의 길로 들어서라”는 스승님의 준엄한 명령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이 동굴이 더 이상 역사적 현실이었던가 하는 의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 ‘얼음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 개인의 성장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헌신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이루어진 숲에서 각자의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내어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내어주심으로써 만민의 평등과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과의 이별, 그러나 한순간도 당신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분께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선포되었음을 묵상하면서 “다 이루어졌다”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애로운 스승님의 가르침이 되어 제 가슴 깊숙이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야, 나를 딛고 일어나라”

■ 교구평형 부회장 goun7575@hanmail.net



사드(THAAD)와 금송아지

■ 김상호 신부(신선성당 주임) airjazz@hanmail.net

광야의 금송아지 - 두려움

아론에게 청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두려움’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 자신들의 진영을 감싸고 있던 주님의 기운을 아직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한다.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고, 약속의 땅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만 할 미래. 지도자 모세는 산에 들어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웠으며 자연스레 이집트식 문제해결 방식을 찾게 된 것 같다. 이집트의 힘이 그리웠을 것이고, 이집트식 힘의 원천이라 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안심코자 하였을 것이다. ‘드디어 우리도 힘을 갖게 되었다.’

2015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37.5조 원, 2016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39조 원. 매년 천문학적 돈이 국방비로 소모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다. 아니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적행위가 된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무기체계를 전개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금송아지, 즉 이집트식 힘의 원천을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져와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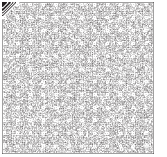
다. 이건 아마 끝도 없는 치킨게임이 될 것이다. 오늘은 그것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탈출 32, 6)겠지만 내일이면 또 다른 금송아지를 모시러 동분서주 할 것이다.

진짜 힘 - 아우르는 품

“지정학적 특성과 강대국들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분단 71년의 역사 속에서 위기를 평화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2),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남북공동선언’(2007) 등은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 변명을 위한 노력의 귀중한 결실이다.”(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공동 성명, 2016년 7월 15일 이란 “인내를 수반하는 대화”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또 다른 금송아지도 있다. 유다임금 르하브암에 대적하여 예로보암이 베텔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그것이다. 이 두 개의 금송아지로 인해 하느님의 백성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다. 안보를 안보로 풀면 안보가 없다.

『하느님의 꿈쟁이 요셉』을 읽고



박 현 빈첸시오 / 다대성당, 중1

처음에 독후감을 쓰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2번 읽었다. 읽다보니 요셉은 내가 아는 요셉이 아니었다. 나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아주시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 요셉은 다른 요셉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신 월 모임 때 학사님께 물어보고 궁금증도 풀 수 있었다.

꿈쟁이 요셉을 읽고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처음 느낀 것은 아무리 하느님이 불행을 주셔도 하느님을 믿고 정직하면 하느님이 불행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주시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의 기적 같은 것을 믿지 못하였다. 그냥 엄마 아빠가 성당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고 믿으라고 해서 믿는 척(?)을 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하느님의 기적을 믿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복음 말씀 중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는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왜냐하면, 이 책에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성경 구절에도 나오니 마치 우연처럼 나에게

믿음의 힘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래서 요즈음 하느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믿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려고 노력한다. 성당도 꼬박꼬박 가려고 하고 복사도 열심히 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다 하느님이 보살펴주시고 나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또 나는 이 책을 읽고 가족의 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야곱이 요셉만 좋아한다고 하지만 동생을 죽이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겼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좋아했었고 이해했다는 것이 가족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형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가족을 이해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구원받아 훗날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 같다.

요즈음 하느님을 믿으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게임을 해도 쉽게 이기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좋은 일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보니 하느님

께서 나를 보살펴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 감사해요!” 나는 든든한 뺨이 생긴 느낌이 들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행복과 행운을 주시니 말이다. 또 나는 요셉처럼 강한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같은 노예가 매를 맞을 때 대신 맞아주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 용기 덕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인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요셉의 올바른 판단 덕에 포티파르에게 큰 믿음을 사서 그의 밑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요셉과 같은 정직한 판단과 하느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 구원을 받고 언젠가는 있을 도탄의 구덩이에서 구원받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최종적 결론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앞으로 지금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 바른 삶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느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사악을 속이고 하느님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에사오가 좀 측은해 보입니다.

창세 25, 33에서 하느님은 이사악의 부인 레베카에게 에사오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고 알려주십니다.(창세 25, 23) 레베카와 야곱이 이사악을 속이고 하느님의 축복을 가로챈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악이 알지 못하던 하느님의 계획을 레베카와 야곱이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에는 이사악보다 레베카가 더 중요한 인물로 길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하느님이 당신 계획을 알려주신 것도 이사악이 아니라 레베카였습니다. 물론 방법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 가며 얻으려 하던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본래 하느님의 축복은 항상 장자를 통

해서 전해지지만 장자였던 에사오는 배고픔을 못 이기고 빵과 불콩죽 한 그릇에 하느님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창세 25, 29~34) 하느님의 축복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에사오와 달리 야곱은 집을 떠나 삼촌 집에서 오랜 더부살이마저 견딜 정도로 하느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 하느님의 축복에 합당한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에사오가 측은해 보이고, 야곱이 알미워 보인다고 해서 성경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활한 야곱과 피해자 에사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결국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바로 그 야곱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 열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선교 활동에 구슬땀 흘려...



수영성당(주임 : 심원택 신부, 회장 : 김성수 프란치스코)은 지난 7월 10일(일), 17일(일) 두 차례에 걸쳐 수영강변 일대에서 선교용 부채, 가톨릭 안내문을 시원한 음료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구포성당(주임 : 이승훈 신부, 회장 : 박종범 프란치스코)은 지난 7월 17일(일)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매주 선교분과를 중심으로 구포시장, 덕천로타리, 구포3동 일대를 두루 다니며, 가두선교를 실시한다.

부산성모병원, 의료지원 협약식



부산가톨릭의료원인 부산성모병원(의료원장 : 노영찬 신부, 병원장 : 김성원 예로니모)은 지난 7월 18일(월) 14:00 남구청과 의료지원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남구 지역민들에게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의료지원금은 부산성모병원 10주년 기념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되었다.

화명성당, 우리가족 찾기 선포식

—우리가족을 찾읍시다! 우리가족을 찾아옵시다!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한 방안으로 화명성당(주임 : 김기홍 신부, 회장 : 전윤석 루카)은 지난 7월 24일(일) 교중미사 중에 '우리가족 찾기' 선포식을 열었다. 신자들은 매일 미사 전, 후로 '우리가족 찾기' 기도를 바치고, 40일간 고리기도를 바칠 예정이다. 또한 가정방문, 주보 나누기, 주임 신부 편지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 교우 회두에 힘쓸 예정이다.

기도를 바칠 예정이다. 또한 가정방문, 주보 나누기, 주임 신부 편지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 교우 회두에 힘쓸 예정이다.

주례성당,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주례성당(주임 : 권순호 신부, 회장 : 홍우재 시로) 신자들은 지난 7월 24일(일)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신자 구·신약 성경 필사본과 본당 30주년사 책자를 교중미사 중에 봉헌했다.

남천성당, 엘리베이터, 에텐키퍼, 우리농매장 축복식



7월 20일(수)
주임 : 이찬우 신부, 회장 : 흥관희 요셉

중앙성당, 엘리베이터 축복식



7월 24일(일)
주임 : 백성환 신부, 회장 : 김영준 요셉

온천성당, 노인대학 성극발표회



7월 21일(목)
소화대학(주임 : 박상대 신부, 학장 : 이원목 베드로)

장림성당, 제 단체별 신약성경 필사 봉헌



7월 17일(일)
주임 : 도정호 셀부
회장 : 김동욱 마르코

한마음(C.U.P) 장학금 전달식



7월 27일(수) / C.U.P 장학금 - 부산가톨릭대학교, 4명 학생, 400만원 전달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상임이사 : 김영환 신부)

교 구

교구 혼인강좌 강사 초빙

지원자격 : 가톨릭신자와 심리학 전공자로서, 현재 전공분야 직업을 가진 분
이력서접수 : 9.11(일)까지, family@catb.kr
문의 : 629-8775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 (055)374-8732~3(관리사무실)

본 당

가야성당 8월 성령치유대례정

· 8.9(화) 12:30~17:00 · 가야성당
강사 : 장훈철 신부(석포성당 주임),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 010-5511-6593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영상과 음악이 있는 묵주기도 100단

· 8.8(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46-3746(파타마의세계사도직)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 교정시설 방학으로 미사 없음
울산 : 8.27(토) 10:00 옥동성당
문의 : 441-7729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부산 : 8.8(월) 11:00 남천성당
문의 : 782-0765

농아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8.12(금) 11:00 · 농아인복지회 3층 성전
문의 : 751-8693 / 10:30부터 미사 수화 공부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및 월미사

· 8.16(화) 14:00 / 지도 :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 010-8879-2376(회장)

2016년 노동사목 수련회

· 8.14(일) 19:00~15(월) 11:30
· 현여울마을 게스트하우스(영도)
주제 : 이주노동 운동의 방향 / 문의 : 441-6403
*8월 바자율미사는 수련회 미사로 대체됩니다

제391차(자매) 꾸르실료

· 8.25(목)~28(일) / 마감 : 8.16(화)
문의 : (055)388-5734, 5733(팩스), 본당 간사

부산ME 소개모임

부산 : 8.15(월) 20:00 남천성당
김해 : 8.22(월) 20:00 연지성당
울산 : 수시(문의 : 010-4872-5051)
340차 ME 주말 : 8.19(금)~21(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465-1010
010-2837-8814, www.mekorea.or.kr/bs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자세히), 제대일 / 활동 :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8.8(월) 19:30 전포성당
· 8.11(목) 20:00 울산 북산성당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8.8(월) 11:00 (안수 / 중식 제공)
- 수요치유기도회
· 8.10(수) 11:00~16:00 / 중식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
· 8.12(금) 23:00~다음날 04:00
강사 : 조영대 신부(광주대교구 용봉동성당 주임)
- 교구 성령묵상회
제415차(청소년) : 8.12(금) 11:00~14(일) 17:30
제416차(일반) : 8.19(금) 11:00~21(일) 17:30
회비 : 일반 10만원(교재비 별도 3,000원), 청소년 8만원 / 당일지참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철야기도회
· 8.11(목) 22:00~02: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 문진하 자매(서울대교구)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지속적인신체조배회 기도학교 개강

· 8.30~11.15 매주 화 14:00~16:30 가톨릭센터 3층
· 8.31~11.16 매주 수 14:00~16:30 토현성당 성전
주제 : 신체조배와 삶의 복음화 / 수강료 : 6만원(12주)
강사 : 최재용 수사신부(올리비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
대상 :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신자
문의 : 466-2290, 010-9331-2290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학년도 2학기

영성심리상담사(심화) 수강생 모집
교육시간 : 매주 월, 금 13:00~17:00
등록금 : 학기당 35만원(교재비 별도)
꽃예술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전례와 꽃예술(일반/최고지도자)(주간/야간), 전례꽃예술 Meister, 기초생활꽃이, 꽃과 스케치, 독일FDF협회 인증 독일Florist, 독일FDF협회 인증 독일FloristMeister, 원예테라피, 프레스플라워, 프리저브드플라워
접수 : 8.1(월)~31(수)
개강 : 9.5(월)부터 과정별 해당요일
문의 : 510-0952~3, edu.cup.ac.kr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와 교구 소식을 접하세요!



교구 모바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www.catholicbusan.or.kr 접속 후, 삼성, LG폰 등 :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아이폰 : 홈화면에 추가



PBC부산평화방송 앱

PBC부산평화방송 앱으로 라디오, 방송토크, 평화방송 TV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미사 앱 (부산교구 설정하기)

매일미사 앱에서 교구 설정을 하시면 가톨릭 부산 주보 및 교구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 : 앱 열기 → 교구설정/변경 → 부산교구 설정 → 설정 완료

주보 표지사진 공모

주제 : 해당 주일 전례(복음)를 묵상할 수 있는 사진

사진 규격 : 디지털 사진화일(JPG,RAW,TIF 등)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컬러 사진(출품수 제한 없음)

접수 내용 : 디지털 사진(첨부),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해당 전례력, 성경구절, 사진설명(장소, 일시, 작품사연 등)

응모 자격 :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 접수 : 이메일(photo@catb.kr) ※ 교구 홈페이지(www.catholicbusan.or.kr) 참조

(주) 씨피여행사
1. 9/26 발간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2. 10/4 스페인 일주, 서유럽 순례 16일
3. 10/7 스페인(바르셀로나 포함) 14일
모바일 홈페이지에 일정 확인 가능
가톨릭센터(본사)담당
010-3837-6434

(주) 나 응 그린세움 종합건설(주)
박 병 주(안드레아)
종합건축 / 리모델링 / 인테리어 공사
TEL. 647-0404
H.P. 010-4845-4819

주단, 포목, 혼수감 도산매, 한복전문 협성주단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 270호 (7호문 안쪽)
646-1123, 918-2246
010-3594-2137

스마일정경우비노기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노기과 과정 / 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순수술
www.bmu.co.kr
744-8181 (센텀신세계 백화점 옆)
상담 010-5616-8600

서울성형외과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T.아키나스)
http://seoulspl.co.kr
818-313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관현(시몬) 최상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성지순례 관광버스
45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결혼식 하객 수송
대표 우종한(리차드), 임예경(젤마)
미래고속관광(주)
055-333-6300, 010-9809-6300

혼례청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경,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총회사 입구)

웨딩연출 & 출장뷔페 웨딩스드메 하우스웨딩 성당예식전문 세인트벨라
김영란(루시아) 553-1792
010-2353-6484
http://blog.naver.com/pop1747

서부지중해 4개국 크루즈 성지순례
9/20(화)~30(금) 10박 11일
이탈리,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경비 : 내측 548만원, 발코니 598만원
* 1인실(싱글룸)로도 예약 가능
02-2281-9070(가톨릭신문사)

제3기 영성심리상담 강좌(2급 심화과정)
 · 8.29~12.19 매주 월요일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 강좌료: 15만원(교재 무료제공)
 강사: 조옥진 신부, 이상훈 박사
 특혜: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상담학회 수련과정 인정
 과목: 가족상담, 마이크로카운셀링기법, 사나나 명상요법, 집단상담, 상담실습 / 문의: 463-7866

오른대순교자성지 상설교해소 운영
 · 매주 월요일, 금요일 14:00~15:30
 문의: 515-0030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쉼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467-7897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8.8(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8.9(화) 10:00 · 이기대성당
 · 8.10(수) 10:00 · 월평성당
 · 8.19(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사랑의성모수녀회BPS 가족 미사
 · 8.8(월) 14:00 · 수녀원
 문의: 756-3266, 010-5648-3266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8.11(목) 14:0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634-4820, 636-4819

묵상 관상 기도 피정과 미사
 · 8.11(목) 14:00 · 가톨릭센터 3층 / 무료
 문의: 010-3332-8789(가르멜동정녀회)

중고생 살레시오(3S영성 리더십)교육(S과정)
 · 8.20(토), 27(토), 28(일) 09:30~16:30
 (단, 마지막날 12:00까지 / 부모님 초대)
 3과정수로 희망자 면접(VIDES 국제자원봉사 가입가능)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해외선교후원금 마련 바자회
 · 9.3(토) 10:00~18:00 · 부산 본원
 문의: 581-3103(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MSC 모집
 <청년인 듯, 청년 아닌, 청년 같은 너!>
 예수마음을 배우며, 살고 싶은 이들을 초대합니다.
 대상: 40세 이하 남녀 청년들(미혼, 기혼)
 카페: <http://cafe.daum.net/lightpeople>
 · 부산본원(성심영성센터) / 문의: 010-9330-3104

새로나는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과목: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 8.31~10.26 매주 수요일 13:00~17:00
 · 바로로말서원 / 교육비: 12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465-2173, 010-6375-2173(대청동 바로로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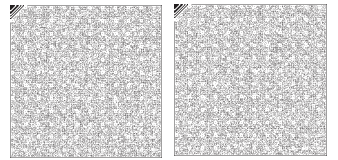
마리아 학교 기초 과정 수강자 모집
 · 9.6~11.20 매주 화요일 14:00~17:00(12주)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6만원(분납 가능)
 내용: 성경(교부, 역사, 전례)속의 마리아, 참된 신심, 봉헌 / 문의: 010-9620-4820, 634-4845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성바오로수도회(말씀으로 마음치유)(독서치료)
 · 9월부터 매주 목요일(10주간)
 오전반: 10:00~12:30 저녁반: 19:00~21:30
 · 가톨릭센터 1층 성바오로 서원 / 참가비: 없음
 대상: 30대~50대 가톨릭신자 / 문의: 521-8898

삼성산성지 8월 무료치유대피정
 · 8.12(금) 18:00~14(일) 15:00
 문의: 010-7375-4600 / 09:00 서면 출발

꽃동네 40주년 기념행사
 · 9.8(목) 13:30 미사
 차량 문의: 010-9585-2118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8.14(일) 14:00	부산 본원	010-9113-499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전화 상담후 정함	전화 상담후 정함	010-9319-169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젊은이 빈마음 피정
 · 8.19(금)~21(일) · 성빈센트 흥천 기도집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여성 / 회비: 3만 5천원
 문의: 010-8833-8107, www.vincent.or.kr(선착순)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8.26~28, 10.1~3 시작 17:30
 8.15~23, 9.5~9, 9.22~30, 10.17~21 시작 14:0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 1,2과정 8.12~14 시작 15:00, 집중수련 8.26~28 시작 10:30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8.14~16, 8.18~20, 8.28~30, 9.19~22, 9.24~27, 9.30~10.3
 내용: 울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분당단체 등 / 문의: (064)796-9181

제주 먼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자비의 회년 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가는 제주 성지순례, 미사, 울레길, 오름 트레킹, 평화, 역사탐방
 · 8.21~23, 9.1~3, 9.5~7, 10.2~4, 10.8~10 9.25~28(추지도 성지 포함) / 문의: (02)773-1463

2016년 2학기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 9.30(금)까지 /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문의: (031)8017-4239, cyberbible.casuwon.or.kr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 대전 서구 갈마로 187-1(과정동) / 종교무관
 문의: (042)534-8876(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p>2016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p> <p>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p>	<p>메리놀 병원</p> <p>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설</p> <p>대상: 말기 암환자 및 통증·증상완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p> <p>문의: 461-2471(완화의료센터)</p>	<p>가톨릭선학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p> <p>부산교구 가톨릭미술인회 정기전</p> <p>전시: 8.22(월)~26(금) 10:00~18:00 장소: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p> <p>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p>
	<p>'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p>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p> <p>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p> <p>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친환경 베이비카페(0~28개월 대상)</p> <p>핑크코끼리</p> <p>구서점 구서역 3번 출구, 이마트 맞은편 518-3217 황하나(베네딕타) 장산점 장산역 13번 출구, 엘리움빌딩 930-0553 하희림(모니카)</p>	<p>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p> <p>일산자동차매상사</p> <p>대표 조남철(테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p>	<p>이명 TSC기술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난청 무료 청력검사(관리)</p> <p>소리대장간(동래점)</p> <p>대표, 고두 리(안젤라) 010-3569-2692 시창역 7번 출구</p>	<p>(주)석경</p> <p>전문건설면허법인 주거, 상업, 인테리어 전문업체 의료, 업무공간 심채영(베가), 박승국(라자로) 해운대구 중동 동일아파트상가 105호 744-1217 www.seokkyung.com</p>
<p>수맥 흙(돌)침대</p> <p>불면증 · 허리통 · 찌뿌둥 임응승 신부님 수맥 지도 문의 1588-5335</p>	<p>이삿집은 우리트랜스로</p> <p>582-1414 582-8555 010-4042-8662 대표: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아)</p>	<p>재활전문</p> <p>수요양병원</p> <p>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임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p>	<p>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p> <p>김용기내과</p> <p>[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외 부산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7명 www.endocrine-clinic.com 상담 및 예약 245-7100</p>	<p>ISO 9001, KGMP 품질 인증 업체 독일 직수입 디지털 보청기 전문</p> <p>독일보청기</p> <p>맞춤형(고악형) 당일 주문 제작 및 즉석 수리 김 무 나(글라라)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6번 출구 1층 분홍색 간판</p>